



3면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음 1월 29일) 제36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천만관광 명품도시 실현 차질 없이”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입실

옥정호 생태탐방 교량 신설 지원 약속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운영 방향 공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입실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실군의 발전과 괄목할 만한 관광의 성과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천만관광 명품도시 실현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심 민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옥정호가 명품 생태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출렁다리와 붕어섬, 운운마을과 수변데크를 잇는 생태탐방 교량 신설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심 민 군수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만 지난 한 해만 46만명에 달했다”며 “하지만 붕어섬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 시설인 생태탐방 교량이 없어서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서 사업의 예산 확보에 필요한 국토부 성장 촉진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화답했다.

오는 28일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결정을 앞두고 입실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방 도시 연대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올림픽이 유치되면 10년간 전북의 문화적 자산과 관광 자원을 잘 다듬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고, 그 중심에 입실이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입실군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라는 주제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입실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입실군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입실군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비전을 밝혔고, 입실군의 주요 성과와 각종 현안 사업 등을 경청했다.

군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문화강화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을 주제로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북특별자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25일 입실군청 강당에서 심민 군수와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도 입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 1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입실치즈 저지종 보급·육성 기반 지원 △옥정호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원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을 건의하며 김관영 지사의 협조를 구했다.

이후, 김 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

화하게 의견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실군의 더 큰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호텔과 음식점 등 숙박 및 맛집 투자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이 중요하다”며 “우리 행정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속도다. 관광을 위해 힘 안 쓰는 시장 군수는 없지만, 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 중 하나도 먹거리, 먹방투어로 임

실치즈축제와 함께 옥정호와 붕어섬 등이 연계한 천만관광 명품 관광도시 입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심 민 군수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입실군민과 함께 기원하고, 입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에 입실군이 함께하겠다”며 “올해 입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옥정호 벚꽃축제가 꼭 와주셔서 옥정호의 놀라운 관광 발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도내 투표소 24곳 확정

전북선관위, 도내 선거인

6만6021명에 안내문 발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투표소 24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6만6,000여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수는 6만6,021명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확정됐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신분증의 종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하고 선거일인 3월 5일에 투표하면 된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 대의원을 개회하여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b.nec.go.kr>)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we-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보건소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2025년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청사 신축 이전 준비·감염병 감시활동 강화 등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이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가 올 한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보건소(소장 김신선) 신년 브리핑을 통해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 전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강화 △함께 만드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 강화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함께 보살피고 같이 예방하는 치매안심도시 실현 △마음 돌봄으로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이다.

먼저 시는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보편적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5층에 건축면적

2,000 제곱미터의 청사 신축 이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는 후보지 및 타당성 조사 등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난해 선정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 편의공간 확충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야간·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 심야약국 지정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야간·공휴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속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신체활동과 비만·영양·절주·금연·구강·심뇌혈관질환과 같은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 등 시민 건강 불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임신 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를 모든 20~49세 남녀에

게 1인 최대 3회를 지원하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하고 불가피한 시술 중단 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관련 시술비가 신규 지원된다.

여기에, 시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 임신부에게 제공하던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오는 3월부터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당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제공하던 ‘어르신 대상 포진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부터는 80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는 올해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항체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에게는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검사)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치매 예방 관리 등도 강화된다.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한약 및 침구치료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등을 확대 보급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빠른 복귀를 지원하며, 현재 5개 동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도 확대한다.

끝으로 시는 시민의 마음을 살피는 정신건강 불평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 및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